

# 온택트 시대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온라인 비대면 성인간호학실습에 대한 내용분석

임소희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tact era

So-Hee L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min University

**요약**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되면서 국내 대부분의 간호학과에서는 기존의 실습방법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비대면 성인간호학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참여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일개대학 간호학과 졸업학년인 4학년 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45명이다. 온라인 비대면 성인간호학실습은 2학점 90시간으로, 1일 9시간씩 총 10일 운영되었다. 본 온라인 성인간호학실습은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실습, 컴퓨터 기반 간호술기실습, 동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 실시간 온라인 퀴즈와 온라인 강의영상시청,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찰일지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 13개의 주제모음, 3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로는 '다양한 상황경험', '새로운 학습의 경험', '임상실습에 대한 성취감', '교수자와의 관계형성', '비대면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예비간호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현장에서 성인간호학실습이 임상실습기관이 아닌 비대면 실습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운영하고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비대면 성인간호학 실습개발 및 운영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As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became a pandemic, most nursing departments in Korea implemented online non-face-to-face practices rather than the existing practice method.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that analyzed the reflection diaries written by participants to understand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process. The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was 90 hours for two credits and nine hours per day for a total of 10 days. This online practice consisted of computer-based simulation practice, computer-based nursing skills practice, video and educational material production, real-time online quiz, online lecture video, and discuss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flection diary, six categories, 13 subcategories, and 33 codes were derived. The six categories were 'Experience of various situations', 'Experience of new study', 'Fulfillment for the clinical practice', 'Building relations with professors', 'Fear of being a pre-nurse', and 'Ambivalence for the non-face-to-face practice'.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in the post-corona era, adult nursing practice was conducted as a non-face-to-face practice rather than a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and various educational methods were opera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Keywords** : Adult nursing, Nursing practice, Nursing student, Online, Content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So-Hee Lim(Kyungmin Univ.)

email: sweetnurseme@naver.com

Received January 11, 2021

Revised February 8, 2021

Accepted April 2, 2021

Published April 30,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초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인들의 생활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1].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대학의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였다. 간호교육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학문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우수한 간호사로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2]. 실습교육 중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으로서 간호 기술을 임상에서 직접 배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 실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로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이러한 임상실습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실습병원에서 환자 및 병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실습이 보류되거나 중단을 요청하였고,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환자나 타 학생으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불안 등을 호소하여 많은 간호대학의 임상실습이 비대면 실습으로 변경되었다.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은 22~24학점, 간호대학생 1인당 임상실습시간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필수교육과정으로[2], 이중 성인간호학은 전체 총 학점의 1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간호학 실습학점은 4~6%로 간호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4]. 최근 환자의 안전과 권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임상실습은 관찰 위주로 제한적인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시뮬레이션실습이 임상실습시간의 12%미만으로 운영하였으나[2], 기존의 시뮬레이션실습은 대면실습이며, 성인간호학실습과 연계되어있는 핵심기본간호술 역시 대면실습으로 교내 실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뮬레이션실습과 핵심기본간호술 실습을 비대면 온라인 실습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전공교과목 임상실습에 비해 성인간호학실습은 다양한 종류의 간호술기와 간호수행을 관찰할 수 있고, 대상자 및 대상자의 가족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소한 기본간호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간호수행 및 경험이 가능한 임상실습교과목이다[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성인간호학 임상실습이 단순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비대면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실습을 통하여서도 임상실습 교육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온택트(ontact)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을 뜻한다[5]. 비대면 임상실습에서는 기존의 비대면 수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쌍방향 소통과 상호작용의 부족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의 지속적인 연결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수업은 티칭보다 코칭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임상실습에서 특히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6] 단순한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 시대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의 새로운 표준인 뉴노멀(New Normal)이 도출되었고, 다양한 실습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의 효과와 질을 유지하며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비대면 실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비대면 실습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온라인 비대면 실습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찰일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뒤돌아보게 하고, 글을 쓰는 동안 경험, 행동 및 감정에 대하여 많은 집중을 하게 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7], 특히, 실습학생에게 임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전문적인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며 성장하는 자서전적 기록이 될 수 있으며, 임상실습 지도교수에게는 실습 학생의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알 수 있고, 각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상호간 의사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8]. 다시 말해,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실습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이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경험한 후, 실습 내용, 느낀 점, 궁금한 내용 및 실습에서 학생이 반성한 점 등을 성찰일지에 작성하게 하여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습과 이론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대학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실습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실습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성찰일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실습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여, 추후 간호학 교과목의 온라인 비대면 실습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Krippendorff(2003)[9]의 내용분

석 연구방법을 통해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경험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성찰일지를 바탕으로 실습과정에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구주제는 “간호대학생의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시행한 후, 비대면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성찰일지를 내용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U시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020년 2학기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에 배정된 93명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몇 명의 참여자들을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3개 학기 이수하였으며, 성인간호학 이론 강의를 4개 학기 수강하였다. 이 중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4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3 자료수집

2020년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시행한 후, 개방형 자기보고식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찰일지의 질문내용은 기술, 분석, 적용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기술단계에서는 ‘실습 중 경험’, ‘새롭게 배우게 된 내용’을, 분석단계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실습과정 중 좋았던 점이나 효과적인 학습’,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적용단계에서는 ‘간호 실무에 적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였고, 서술 내용의 정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 2.4 온라인 비대면 실습

기존 임상실습 운영은 2학점 90시간 이었으며, 변경된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 역시 동일하게 4학년 2학기 2학점 90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실습기간은 2020년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체 수강생 93명을 2개의 분반으로 나누고, 분반별로 6개조(6~8명/조)로 구성

하였으며, 1일 9시간씩 총 10일(2주간) 운영되었다.

온라인 비대면 실습은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실습, 컴퓨터 기반 간호술기실습, 동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 실시간 온라인 퀴즈와 온라인 강의영상시청,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실습은 래어달(Laerdal Medical, Stavanger, Norway)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Virtual Simulation(vSIM) 중, 해당 성인간호학실습 학습목표 및 학습성도에 적합한 시나리오 4개(폐렴과 쇼크대상자 간호, 급성심근경색과 심폐소생술, 고관절치환술과 출혈 간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밀봉흉관배액)를 선정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문헌고찰과 이에 따른 concept map 작성,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ZOOM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 시뮬레이션 구동, ZOOM을 이용한 디브리핑, 각 시나리오에 따른 SBAR 보고와 간호기록, 이에 따른 집담회 순으로 진행하였다. 컴퓨터 기반 간호술기실습은 엘스비어 코리아사의 간호술기 이터닝 프로그램(nursing skills) 중, 4학년 2학기 성인간호학실습의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에 따른 모듈 및 술기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로 실시간 온라인 퀴즈를 진행하거나 동영상을 제작 및 발표하여 학습성과 달성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실습 및 간호술기실습에서 미흡한 부분은 교수자가 온라인 실습영상을 제작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높여 학습목표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차별 학습목표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고, ZOOM을 이용하여 일차별 실습을 각 교수자가 마무리 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의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이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성찰일지를 통하여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9]. 먼저, 분석에 앞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관련문헌을 통해 연구방법과 절차를 숙지하였고, 원자료는 총 7회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계는 Krippendorff(2003)[9]와 Son, Song, Won, Lim(2017)[10]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첫 단계는 기술한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 경험과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한 단어, 구문, 절 등으로 내용 분석 단위로 분리하였다. 서술된 문장 중 서로 다른 내용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분리하고,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재 기술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술문을 선정하였다(주제). 세 번째 단계는 주제를 모으기 위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종합하였다(주제모음). 네 번째 단계는 종합된 내용을 개념화하여, 영역별로 분류하였다(범주). 대략적으로 주제모음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범주목록별로 범주를 수정하고, 하위 주제를 분류하는 등 범주목록과 반응 내용을 확인하며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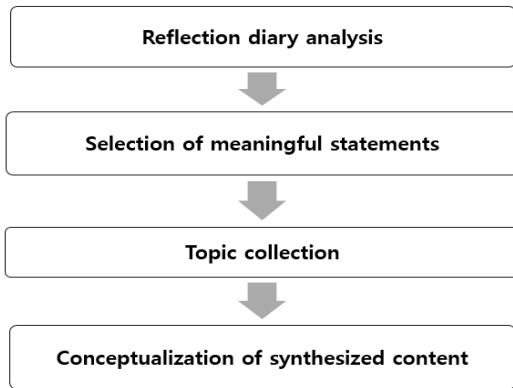


Fig. 1. Data analysis procedure

## 2.6 연구의 엄격성

수집된 연구의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11]. 사실적 가치를 위하여 성찰일지가 개개인의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고, 자유롭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수차례의 점검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가 지도한 학생은 참여자에서 배제하였으며, 참여자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찰일지를 통하여만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질적학회 및 세미나에 년 1회 이상 참석하여 질적 연구 전반에 대한 탐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최근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학회지에 논문게재와 질적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간호대학생 교육 및 임상실습교육지도 경험이 7년 이상의 전문가로 성인간호학 실습지도경험과 질적 연구에 대한 참여로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 2.7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참여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성찰일지의 내용은 연

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익명성에 대한 보장 및 응답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도중이라도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자료수집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성찰일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처리되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총 45명으로, 성별은 남학생 8명(17.8%), 여학생 37명(82.2%)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대부분이 22~23세로 20대 초반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5)

General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8(17.8)
	Female	37(82.2)
Age(year)	≤ 21	1(2.2)
	22 ~ 23	41(9.1)
	≥ 24	3(6.7)

### 3.2 대상자가 경험한 온라인 비대면 실습에 대한 성찰일지 내용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13개의 주제모음과 6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 3.2.1 다양한 상황 경험

‘다양한 상황 경험’에는 ‘다양한 질환의 환자간호를 경험함’, ‘응급상황의 대처를 배움’, ‘예비간호사로서의 준비를 배움’ 3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성인간호학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하면서 내·외과 다양한 질환에 대한 대상자의 간호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쇼크환자, 출혈환자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따른 환자를 사정하고 간호하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우며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질환에 따른 간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였으며, 수행한 간호에 대하여 철저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임상에서 신규간

호사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간호기록과 보고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를 수행할 수 있었다(Table 2).

폐렴, 급성심근경색, 고관절치환술,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내·외과 환자를 실제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었다(참여자 1).

폐렴, 급성심근경색, 고관절치환술,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각종 질환에 따른 간호사정을 학습하고, 배웠던 이론 학습을 연결할 수 있었다(참여자 4).

폐렴, 급성심근경색, 고관절치환술,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주요 간호수행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참여자 7).

어떠한 질환에 따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참여자 11).

각 질환에 따라 해당 주요약물의 사용 및 간호수행을 배울 수 있었다(참여자 23).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폐소생술, 출혈환자간호, 밀봉흉 관배액장치와 같은 질환에 따른 합병증이나 응급상황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점검할 수 있었다(참여자 28).

임상에서 시행하는 간호기록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다(참여자 30).

신규간호사로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보고해야 하는 데, SBAR에 근거하여 배우고 직접 해볼 수 있었다(참여자 45).

### 3.2.2 새로운 학습의 경험

‘새로운 학습의 경험’에는 ‘비대면 온라인 간호실습을 경험함’, ‘충분한 반복학습을 경험함’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비대면 온라인 실습을 통하여 임상실습을 진행하게 되었고, 2주간의 비대면 실습을 통하여 기존의 임상실습이 아닌 온라인 학습법을 경험하였고,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환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온라인 실습의 장점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었다(Table 3).

Nursing skills을 통하여 건강사정,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응급간호, 수술 간호 등 다양한 술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참여자 12).

ZOOM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볼 수 있었다(참여자 20).

Table 2. Experience of various situations

Category	Subcategory	Code	N(%)
Experience of various situations	Experiencing patient care in various disease	Experiencing patients who are in various disease	7(6.7)
		Learning nursing assessment in various disease	8(7.6)
		Learning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patients in various disease	14(13.3)
	Learning how to handle the emergency situation	Learning the importance of priority	15(14.3)
		Learning treatment and care in various situations	10(9.5)
		Firming rationale in nursing	14(13.3)
Learning how to prepare to be a nurse	Learning about nursing records	18(17.2)	
	Learning the ways of communication in difference situation	19(18.1)	
Total			105(100)

Table 3. Experience of new study

Category	Subcategory	Code	N(%)
Experience of new study	Experiencing on-line non-face-to-face nursing practice	Experience computer-based simulation practice	28(18.6)
		Experience computer-based nursing skill practice	27(18.0)
		Experiencing real-time online lectures	25(16.7)
	Experiencing enough and repetitional studies	Repetitional studies of the on-line simulation operation	25(16.7)
		Repetitional studies of the on-line simulation test	25(16.7)
		Repetitional studies for the lack of nursing skill	20(13.3)
Total			150(100)

처음 접해보는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실습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꾸 해보니까 이해가 되었다(참여자 29).

처음에는 시나리오 구동 점수가 낮았으나 반복해서 해 보니까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난 후, 반복된 구동에서는 점수가 올라갔다(참여자 33).

컴퓨터 기반 간호술기실습은 이론적 근거가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좋았다(참여자 41).

### 3.2.3 임상실습에 대한 성취감

‘간호학생으로써의 임상실습을 끝맞춤’, ‘비대면 실습을 마무리 함’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실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으로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끝내게 되었고, 학생간호사의 역할을 마무리 하였다. 또한, 2주간의 성인간호학실습을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경험하며 마무리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였다(Table 4).

드디어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끝낸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참여자 6).

성인간호학실습을 끝내면서 임상실습복과 학생간호사 명찰을 정리하면서 더 이상 학생간호사라고 불릴 일이 없음을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들었다(참여자 17).

성인간호학실습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연함에 걱정이 많았고, 오리엔테이션 때 들었던 실습과정이 어렵다고만 느끼고 부담스러웠으나 2주간의 성인간호학실습을 잘 마무리하였다(참여자 22).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제작, 간호기록 등 너무 다양한 비대면 실습을 경험하였고, 이를 잘 끝내었다(참여자 42).

### 3.2.4 교수자와의 관계형성

‘교수자와의 관계형성’에서는 ‘비대면 실습에 대한 개별성찰’, ‘교수자와의 친밀감’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매 주제별, 일별 실습 후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참여자의 학습목표 성과를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 피드백을 받게 될 때, 구글 클래스룸이나 ZOOM,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개별로

참여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피드백을 받아 교수자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Table 5).

각 과제에 대하여 교수님이 자세하게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해주셨다(참여자 15).

매일 실습이 끝나고 실습한 하루 일정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ZOOM을 통해서 확인해주셔서 좋았다(참여자 22).

처음에는 교수님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부담스럽지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찾는 과정을 통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참여자 37).

궁금한 사항이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격려뿐만 아니라, 잘하는 부분에 대하여 칭찬을 받아 좋았다(참여자 42).

구글 클래스룸에서의 비공개 질문이나 공개된 Q&A, 카카오톡, ZOOM, 쪽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수님이 접근해주셔서 편하게 실습할 수 있었다(참여자 45)

### 3.2.5 비대면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특수부서에서 임상실습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안전감’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4학년 2학기 성인간호학실습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 실습으로 진행되나 비대면 온라인 실습으로 변경되면서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나로 인하여 임상현장에 문제가 될 것에 대한 걱정이 비대면 실습전환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게 되었다(Table 6).

응급실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실습을 하면서 직접 응급실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쉽다(참여자 4).

지난 1학기에 실습한 학생들이 수술실 실습하면서 재미있었다고 했는데, 직접 수술실을 들어가지 못해 아쉽다(참여자 7).

1학기 실습이 수술실 이었고, 2학기 실습이 중환자실 실습 예정이어서 마지막 성인실습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 직접 배울 수 있어서 기대했었는데 아쉽다(참여자 14).

매스컴에서 병원에서 확진자가 있어서 병원에서 감염되거나, 실습을 하러 가던 중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될까 두려웠는데 온라인 실습으로 변경되어 다행이다(참여자 22).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 등 철저히 관리가 되는데 혹여나 내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내가 감염되어 병원이나 환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온라인 실습으로 해서 안도하였다(참여자 40).

### 3.2.6 예비간호사에 대한 두려움

'예비간호사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걱정', '준비되지 못한 나의모습에 대한 걱정'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4학년 2학기의 임상실습이 간호대학생으로서 마지막 실습을 비대면 실습으로 진행하여 직접 간호를 하지 못함에 대한 걱정과 의료인으로 통합적 사고, 의사결정 및 응급상황에 대한 행동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Table 7).

Table 4. Fulfillment for the clinical practice

Category	Subcategory	Code	N(%)
Fulfillment for the clinical practice	Completing the clinical practice as a nursing student	Completing 1,000 hours clinical practice	29(30.5)
		Finishing the title of the student nurse	21(22.1)
	Completing the non-face-to-face practice	Completing the 2weeks adult clinical practice in non-face-to-face	27(28.4)
		Experiencing various non-face-to-face practice	18(19.0)
Total			95(100)

Table 5. Building relations with professors

Category	Subcategory	Code	N(%)
Building relations with professors	Individual reflection for the non-face-to-face practice	Getting feedback from professors after every practice	20(17.9)
		Checking the learning outcomes based on the lesson objectives	23(20.5)
		Realizing what is lacking parts	25(22.3)
	Intimacy with professors	Receiving compliment and encouragement	18(16.1)
		Getting feedback in various ways	26(23.2)
Total			112(100)

Table 6. Ambivalence for the non-face-to-face practice

Category	Subcategory	Code	N(%)
Ambivalence for the non-face-to-face practice	Missing not having the clinical practice in specific departments	Not experiencing the emergency room practice	15(21.7)
		Not experiencing the operation room practice	15(21.7)
		Not experiencing the intensive care room practice	11(16.0)
	Safety from the Corona virus infection	Fear of the clinical practice in increasing the Corona virus cases	14(20.3)
		Worry about the damage that I could bring	14(20.3)
Total			69(100)

Table 7. Fear of being a pre-nurse

Category	Subcategory	Code	N(%)
Fear of being a pre-nurse	Worry about the roles of a health care provider	Lack of an integrative thoughts	14(14.6)
		Lack of decision making	13(13.5)
		Lacking of the suitable actions in emergency situation	19(19.8)
	Worry that I am not ready to be a nurse	Worry about working as a nurse	28(29.2)
		Worry about the last practice performing through non-face-to-face	22(22.9)
Total			96(100)

vSIM에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은 반복학습해서 내가 해야 하는 간호중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적재적소에서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 걱정이다(참여자 4).

vSIM에서는 컴퓨터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 잘 못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임상에서 신규간호사로 근무할 때 나의 의사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제대로 결정을 내리고 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참여자 12).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잘 못할 것 같다(참여자 43).

과연 내가 졸업한 후에 간호사로 근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참여자 15).

마지막 4학년 2학기 실습을 비대면으로 해서 걱정이 된다(참여자 45).

#### 4. 논의

연구 참여자의 성인간호학 임상실습기관은 2020년 9월 기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개기관의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 이었으나,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2차 유행이 급속도로 지역 사회 확산이 되어 온라인 비대면 실습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실습을 온라인 비대면 실습으로 운영한 후, 학생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온라인 비대면 실습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다양한 임상실습 교육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33개의 주제에서 13개의 주제모음이 형성되었고, 다시 6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범주는 '다양한 상황 경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실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를 지지한다[8, 10, 12]. 실습교육은 학습자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를 통하여 지식체를 확장시키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렇듯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통하여서도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배웠던 이론을 실습에서 통합시켰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Seo와 Eom(2017)[13]의 연구에서 온라인 간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임상실습간호교육 후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과 실습만족도가 향상되었고, Cha와 Kang(2020)[1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병행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 후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비대면 실습에서도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환자간호를 경험할 뿐 아니라 실습에서 습득해야 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존의 임상실습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임상실습기관과 부서가 다양하여 교수자가 동일한 학습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비대면 실습 프로그램 및 평가 등의 체계적인 개발을 시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인간호학실습에 대한 학습성과 달성측정 및 평가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범주는 '새로운 학습의 경험'이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온라인 실습을 진행하면서 vSIM, nursing skills, 구글 클래스룸, ZOOM이라는 새로운 학습방법을 경험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수업이 학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한다[15]. 본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실습환경이 아닌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학습방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실습은 연구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는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호기심 자극이나 마음이 이끌려 주제에 대해 자발적인 탐색활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16]. 이에 교수자는 실습수업에서도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인 실습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수준에 따라 반복학습을 하였음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한다[12, 17].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은 임상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문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상수행능력의 기초술기로 반복된 연습, 세심한 평가와 재교육이 요구되는 실습이다[18]. 기존의 임상실습에서는 실습기자재 및 환경, 평가자 등의 문제로 학습자에게 충분한 반복교육과 연습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실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본인의 수준과 평가 정도에 따라 반복연습이 가능하며, 시간조절 및 재복습을 하며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범주는 '임상실습에 대한 성취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주간의 성인간호학실습을 비대면으로 마무리한 것과 동시에 간호대학생으로써의 임상실습을 끝낸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6, 10].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각 교과목마다 실습기관과 부서가 다르며 학습목표, 학습성과 및 달성해야 할 성취수준이 달라 간호대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는 이번 실습을 마지막으로 학생간호사로서 힘들었던 실습을 마무리하였고, 4년의 간호학 과정이 끝났다는 성취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주간의 성인간호학실습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행하면서 vSIM, nursing skills, 교육동영상 등 다양한 학습과정을 경험하였고, 특히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실습은 영어로만 진행이 되어 처음 접하는 컴퓨터 환경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다양한 간호중재를 경험하게 되어 비대면 실습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범주는 '교수자와의 관계형성'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실습을 진행하면서 교수자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친밀감을 느낀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ark과 Shin(2020)[1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이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를 지지한다.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본 성인간호학실습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토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학습자와의 상호작용하며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에 대하여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간호학실습은 이론 교과목과 달리 8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추후, 학습자의 만족도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습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피드백을 활용하는 실습수업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범주는 '비대면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수부서에서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코로나 감염 예방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한다[2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코로나19 이전 계획된 임상실습부서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특수

부서이었으나, 온라인 비대면 실습으로 전환되며 특수부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본 참여자들은 졸업시점의 간호대학생으로 취업 전, 특수부서 실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아쉬움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현장과 유사한 사례를 온라인에서 적용하였다고 하나 온라인을 통하여 의료인의 숙련성을 관찰하고 실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코로나 감염증이 지속되거나 실습이 불가한 상황이 계속되었을 시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이나 특수부서에 따른 시나리오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 범주는 '예비간호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10]. 본 연구의 참여자는 졸업학년으로 본 실습이 종료된 후, 더 이상의 학생간호사가 아닌 전문의료인력인 간호사로 근무하게 된다. 마지막 실습이 비대면 실습이어서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온라인 실습을 통한 다양한 사례들과 이에 따른 응급상황을 경험하며 참여자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함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통합적이며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습교육은 학교와 임상간의 괴리를 줄이고, 체계적인 실습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에 학교와 실습기관과의 현장감 있는 실습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임상현장에 알맞은 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성찰일지를 내용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45명의 참여자의 성찰일지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 13개의 주제모음, 3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로는 '다양한 상황경험', '새로운 학습의 경험', '임상실습에 대한 성취감', '교수자와의 관계형성', '비대면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예비간호사에 대한 두려움'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진 기존의 임상실습을 온라인 비대면 실습으로 적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의 운영 및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비대면 실습과 임상실습과의 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온라인 비대면 실습

이 임상실습 과정이나 학습성과 평가도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적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대학 성인간호학실습에서 진행된 실습으로, 추후 표준화된 온라인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Y. C. Shin, "Toward one health & welfare: Health and welfare in the Covid-19 pandemic",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0, No.1, pp.5-10, 2020.  
DOI: <https://doi.org/10.15709/hswr.2020.40.1.5>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of Bachelor and associate degree in nursing program.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 [3] H. S. Song, S. H. L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5, pp.533-543, 2019.  
DOI: <https://doi.org/10.21742/AJMAHS.2019.05.49>
- [4] N. C. Kim, H. Y. Lee, B. H. Kim, K. R. Shin,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clinical practicum for adult health nursing at four-year nursing colleg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17, No.5, pp.831-843, 2005.
- [5] Naver Ontact [Internet]. Naver, c2020 [cited 2020. August 15]. Available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72&categoryId=43667&categoryId=43667>
- [6] E. J. Kim, Y. J. Kim, S. M. Mo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meaning response, and effective methods for debriefing in simulation-based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24, No.1, pp.51-59, 2017.  
DOI: <http://doi.org/10.7739/jkafn.2017.24.1.51>
- [7] C. F. Petranek, "Written debriefing: The next vital step in learning with simulations", *Article in Simulation & Gaming*, Vol.31, No.1, pp.108-118, 2000.  
DOI: <https://doi.org/10.1177/104687810003100111>
- [8] N. Vatansever, N. Akansel, "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clinical placements: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9, No.3, pp.1040-1048, 2016.
- [9]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3.
- [10] Y. J. Son, H. S. Song, M. H. Won, S. H. Lim, "Clinical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dult intensive care unit using content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6, pp.353-370, 2017.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7.17.16.353>
- [11] E. G. Guba, E. G. Lincoln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1985.
- [12] J. Y. Kang, "Simulat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the on-tact age: A mixed methods case stud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8, pp.937-957, 2020.  
DOI: <http://doi.org/10.2251/jlci.2020.20.18.937>
- [13] Y. H. Seo, M. R. Eom, "The effects of clinical nursing practicum education using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Focused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of special uni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5, pp.539-556, 2017.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7.17.15.539>
- [14] J. E. Cha, H. J. Kang, "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education combined with online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prepar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on care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pp.433-446, 2020.  
DOI: <http://doi.org/10.37727/jkdas.2020.22.1.433>
- [15] Y. No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earner's satisfaction with goggle classroom",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Vol.21, No.4, pp.71-89, 2019.  
DOI: <http://doi.org/10.34183/KCSMA.21.4.4>
- [16] H. J. Lee, E. J. Boo, "Context effects of contrasting interests of preceding and subsequent tasks: Task interest and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4, No.1, pp.41-65, 2020.  
DOI: <http://doi.org/10.17286/KJEP.2020.34.1.03>
- [17] S. N. Kim, "The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on-line lectu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7, pp.477-491, 2020.  
DOI: <http://doi.org/10.2251/jlci.2020.20.17.47>
- [18] H. S. Song, S. H. Lim, "Effects of self-management strategies o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7, pp.533-549, 2017.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7.17.17.533>
- [19] M. A. Park, S. J. Sh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of good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50, No.1, pp.101-115, 2020.  
DOI: <https://doi.org/10.4040/jkan.2020.50.1.101>
- [20] Kim, W. J. Kim, H. Y. Mi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in virtual simulation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2, pp.198-207,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98>

임 소 희(So-Hee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적응